

성결교회 선교 120주년 제105회 총회 준비 순항 중 '성결의 빛 120년, 재림신앙으로 열방을 향하여'



제105회 총회를 1달여 앞둔 7일 현재 총회 준비가 순항 중이다. 선교 120주년을 맞이하는 총회를 기념하며 특별순서 등을 마련해 105회 총회를 축하하며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총회준비위는 지난 6일 총회본부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원주시 소재 오크밸리 리조트에서 5월 18~19일 양일간에 걸쳐 진행될 이번 105회 총회 주제는 '성결의 빛 120년, 재림신앙으로 열방을 향하여'로 정해졌다. 회의자료집도 예년처럼 PDF 형태로 배포되며 스마트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대의

원들을 위해 최소한의 분량으로 제작된 회의자료집이 배포될 예정이다. 또한 회의자료집은 총회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배포되어 대의원들이 충분히 숙지하여 회의에 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개회예배는 총회임원들이 순서를 맡아 드려 진다. 형제교단인 기성과 나성 총회장들의 축사가 이어지며 최대 관심사인 임원선거는 예년처럼 전자투표로 진행된다. 그간 몇차례의 전자투표를 통한 투·개표가 이제 대의원들에게 충분히 숙지가 되고 시간과 운영의 효율을 실패할 수 있다는 장점이 크게 부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임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임원후보들은 △총회장 후보 이종만 목사 △부총회장 후보 기호1번 노윤식 목사, 기호2번 이상문 목사 △장로부총회장 후보 황재돈 장로 △서기 후보 기호1번 송영만 목사, 기호2번 강명국 목사 △부서기 후보 임태진 목사 △회의록서기 후보 김규식 목사 △회계 후보 박정식 장로 △부회계 후보 김용빈 장로가 최종 등록을 마쳤다.

지난 104회 총회에 상정된 현장개정 안들이 1년간의 법제부 연구 끝에 연이어 다뤄진다.

성결교회 선교 120주년을 맞이하는 연차대회도 첫째 날 오후시간에 진행된다. 선교와 재림을 핵심 키워드로하여 개회선언과 함께 파송 선교국들의 영상상영과 해당 국가의 선교사 소개 등이 진행되며 빈 국립음대 국윤중 테너의 특별 찬양의 시간도 이어질 예정이다.

총회준비위원회 위원장 이종만 목사는 "105회 총회를 통해 우리 교단이 한결更进一步 도약하고 나아가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14차 임원회의, 산하기관 이사 인준의견 등 처리 총회임원 고발 예고 내용증명 서기부 통해 대응키로



제14차 임원회의가 지난 3월 31일 성결대학교 학술정보관에서 개최됐다. 9명의 임원 모두가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행정재판위원회 위원 보선의 건이 다뤄져 구로중앙교회 송교중 장로를 선임키로 하였다.

총회성결교신학교 이사파송의 건도 상정되었다. 조임인 김상혁(햇빛) 박병두(목양) 이세명(문화) 목사를 재임키로 하였으며 이규 목사(시티미션)도 신입이사로 함께 실행위원회에 인준을 요청키로 하였다.

학교법인 성결신학원 이사 추천의 건도 상정되어 현 성결대학교 총장 정희석 장로를 추천하여 실행위에 인준을 요청키로 하였다.

지난 3월 정기지방회 후 경기서전도지

방회가 성결신문 광고를 통해 '회장부'라는 직책을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이는 현장에 존재하지 않는 조직이니 현장에 의거한 조직을 재구성해 보고토록" 지도키로 하였다.

한편 인천지방회 모 목사가 총회 임원들을 상대로 사회법에 고발을 예고한 내용증명을 보내온 것과 관련하여서는 아직 소송이 진행된 것이 아니니 지켜보자는 여러 의견들이 오고갔다.

이날 임원들은 잠정적으로 소송이 진행되면 현장에 따라 당사자를 해당지방회에 고발키로하는 한편 서기부를 통해 소통 창구를 일원화하여 당사자와 대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동정

총회장 홍사진 목사

3. 24 여목회자 총회
- 26 군선교 연합회 모임
- 27 CTS 주주 총회
- 30 여전도회전국연합회 총회
- 31 실무양선교회 창립예배

총회임원회의

4. 2 홍대실 권사 55주기 추모 예배
- 4 광화문 부활절 파레이드
- 5 한교총 주관 부활절 연합 예배
- 6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기호 추천
- 13 총회장배 목회자 추구대회
- 14 중경부총회장회 총회
- 17 원로목사회 총회
- 영양 김응조 목사 추모예배
- 20 예성사모수련회

총회본부 ARS 대표번호
1600-0695

국선위, 인공지능시대 AI실전 활용 세미나 마련

오는 5월 7일, 목회현장 AI실전 활용방법 교육

총회가 주최하고 국내선교위원회(위원장 위성섭 목사) 목회사역분과가 주관하는 '목회자를 위한 AI실전 활용 세미나'가 마련됐다.

오는 5월 7일(목)과 6월 11일(목) 두차례에 걸쳐 각각 개최되는 이번 AI실전 활용 세미나는 설교준비부터 교육, 행정 전도까지 목회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AI실전 방법을 교육한다.

1차는 거북한씨성동교회에서 오전 9

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오는 6월에 진행될 2차 세미나는 신원동성결교회에서 진행된다. 세미나 중 노트북이나 휴대폰은 필수로 준비해야한다.

강사는 스파크 AI 교육연구소 소장 마상욱 목사가 진행한다. 마 목사는 미국 OIKOS 대학교 AI융합학과, 숭실 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로 활동 중이다.

회비는 식비 포함 8만 원이며, 문의는 국선위 목회사역분과로 하면 된다.



성결대학교,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교회로부터 발전기금 전달받아

미래 사역자 양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에 사용

성결대학교(총장 정희석)는 지난 4월 3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한국기독교 100주년기념교회에서 미래 사역자 양성을 위한 발전기금(장학기금) 1,000만 원을 전달 받았다.

이번 발전기금은 신앙과 학문을 겸비한 차세대 사역자 양성을 위한 장학금으로 의미있게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양회진 외국인선교사지원회와 기록관을 함께 탐방하며, 한국 기독교 초기 선교사들의 헌신과 신앙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선교사들의 묘역을 둘러보고 그들의 유품과 기록을 살펴봄에 기독교 정신의 본질적 가치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계기가 됐다.

성결대학교 정희석 총장은 "이번 발전기금 수령과 현장 탐방을 통해 선교사들의 헌신과 신앙을 다시금 되새길 수 있었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교회 전경

다"며 "앞으로 외국인 유학생 및 신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결대학교는 이번 교회와의 협력을 계기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실질적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Photo News

청년담당 사역자 세미나 준비모임

오는 4월 9일 진행될 청년담당 사역자 세미나를 위한 준비 위원들 모임이 지난 2일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있었다.

영암 김응조 목사 제35주기 추모예배

초대의 글

성결대학교의 설립자이시며, 한국 성결교회의 큰 스승이신 故 영암 김응조 목사님의 제35주기 추모예배를 다음과 같이 개최함을 알려드립니다. 뜻있는 자리에 교단의 모든 분들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26. 4. 16. (목) 오후 2시 30분
- 장 소 : 성결대학교 80주년기념대강당
- 주 최 : 영암 김응조 목사 기념사업회
- 주 관 : 예수교대한성결교회총회 / 성결대학교

기념사업회 후원사업

여호와께 성결 יהוה קדש (야드쉬 아도나이)

※성결함에 대한 열정과 소망을 담아 만들었습니다.



성결은반지 / 30,000원

■ 문의: 임태진 목사/010-8788-1767

■ 입금계좌 :

신한은행 100 032 765396 예성총회

※ 교회 임직 및 행사 때 꼭 구입해 주십시오.

영암 김응조 목사 기념사업회 | 회장 윤기순 목사